

# 부다피아 2

초파의 불교행사 인터넷으로 함께 한다



◇ 올해 부처님오신날 관련 불교행사가 인터넷에 부다피아를 통해 세계에 안내된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불교행사 안내 인터넷 서비스는 부다피아의 기술력과 불교기획단·불교문화원의 정보·자료제공으로 구축된다. 사진은 지난해 여의도에서 열린 불교법요식 장면.

## 지구촌 5천만 가입자 법요식·연등축제 감상

불교기획단·불교문화원 핫라인 연결



◇ 인터넷에 띄운 부처님오신날 불교행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히 사부대중에 제공한다는 것. '96 불교행사 홈페이지는 실시간(Real Time) 정보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불교행사 보도를 도맡았던 신문과 방송매체와 비교해 현장감 있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신문이 갖는 지면 한계와 방송매체가 갖는 시간의 한계를 불교행사 홈페이지에서는 더 이상 한계할 수 없다. 따라서 불교행사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한국불교의 불교행사를 지구촌 축제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부다피아에 의해 제공될 '불기2540 불교행사 안내' 홈페이지는 당연히 인터넷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된다. 인터넷은 세계적인 통신망으로 지구촌 5천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차세대 통신망이다. 따라서 지구촌 어느곳에서든 부다피아 웹사이트를 방문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불교의 불교행사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한국불교사 최초로 '96 부처님오신날 불교행사가 본사의 인터넷 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 본사의 전략정보기술팀이 불교기획단과 한국불교문화원의 협조체제를 통해 준비하고 있는 '96 불교행사 홈페이지' '불기2540 불교행사 안내' 구축 계획은 불교행사와 관련해 △ 일정표 △ 법요식 △ 문화행사 △ 연등축제 △ 불교기획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에 한정된 불교행사의 지리적 여건을 극복 개선하기 위해 △ 지리의 손길 △ 지역 불교행사 △ 사찰단위 행사도 함께 인터넷 상에 제공, 세계인이 함께 하는 불교행사로 유도할 방침이다.

'불기2540 불교행사 안내' 홈페이지 구축에 여념없는 본사 전략정보기술팀은 "불교행사는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범세계적인 불교축제입니다. 또한 사부대중은 이 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탄신을 오래도록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라며 불교행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그러나 현대 언론의 특성상 단발성 기사로만 취급받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라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동기를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구축될 '96 불교행사 인터넷 홈페이지는 연중내내 불교행사 관련 정보를 보관·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96년도 이전 불교행사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 지역·사찰행사도 총망라 포교세계화 신기원 이룰 듯

'불기2540 불교행사 안내' 홈페이지는 부다피아 자체의 기능에 힘입어 몇가지 특징을 갖게 된다. 첫째, 예년보다 많은 대중이 불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과거 불교행사는 서울을 비롯 경기지역에 한정된 지역적인 행사로 비쳐져 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통신망을 적극 활용하는 부다피아에 힘입어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불교행사의 상세한 정보를 신속

## 부다피아 개통을 축하합니다

설 정 (조계종 중회의장)

'부다피아'란 이름만으로도 불국토 건설의 간절한 염원이 충만한데 인류를 하나로 묶는 인터넷 정보 포교사로 그 몸을 드러냈더니 부처님 법을 받드는 사람으로서 축하의 말씀을 아끼지 못하겠습니다. 세계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세계가 좁아지는 현상은 일견 환영할 일이면서도 인간성의 상

## 정보화 중심에 선 '부다피아'에 박수

실이라는 부작용을 속출 시키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탐욕에 젖어 있어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부처님께서 퍼 보신 진리야말로 메달라 가는 인류 사회를 구할 수 있는 위대한 혜광인 것입니다. 그 정법의 휘광이

남남이 진리의 법체가 되어 컴퓨터를 통해 세계 인류에게 배달된다니 이 세계가 찬란한 불국토의 아침을 맞을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불교 1천 6백여년을 고스란히 세계로 전파하는 인터넷 포교사 '부다피아' 탄생에 부처님 가피가 차고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종 립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지금까지 정보는 '활자'의 형태였으나, 점차 '전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전자'로의 대체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PC의 출현과 함께 예견된 것이었으며, 이제는 정보통신의 발달을 토대로 한 시공을 초월한 정보의 공유 및 교환, 멀티미디어로 표현되듯 데이터의 통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

## 정법이 컴퓨터 통해 세계로 퍼지길

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인터넷, 더 정확히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급속한 확산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는 이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보화'라는 말이 지극히 보편화된 지금도 불교계는 '정보화'의 변방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되기도 합니다. 부다피아의 개설은 그런 의미에서 커다란 걸음을 세계로 옮긴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불교를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손쉽게 세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 현대화의 청신호를 보는 듯하여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오 상 환 (교수불자연합회장)

최근 사용 인구가 놀라만치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에 한국의 불교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된다는 것도 매우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써 한국불교는 세계 곳곳에 한 순간도 뒤처지지 않고 존재하게 되었고 그것은 눈에 띄지 않을 지라도 굉장한 포교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 한국불교 위상강화 큰 획 긋는 계기

특히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관심도의 세계적 증폭이 불교에 대한 이해도 더욱 빨라질 것도 아울러 기대합니다. 이제 세계를 무대로 당당히 첫발을 내디딘 부다피아는 한국불교를 종합적으로 알리면서 누구보다 정확한 자료·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그 위상을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상의 불교정보는 지역적 한계와 이용자들의 관심도에 따라 매우 큰 다양성이 확보된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는 부다피아만의 독특한 경쟁력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 문을 연 부다피아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어 봅니다.

이 종 옥 (동국대 정보관리학과 교수)

현대불교신문이 불교계에서 최초로 자체 순수한 기술력으로 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 본격적인 정보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한국 불교의 21세기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특히 언론기관이 인터넷에 정보제공자로 참여한다는 것은 정보의 생산자와 유통자를 일치시켜 시공을 초월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

## 시공초월 생생한 불교정보 교류를

한다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려대장경이 몇 백년에 걸친 찬란한 문화유산이듯 현대불교의 데이터베이스도 경건 불교학자로 사찰정보 인물정보 신행 정보등을 장기적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집대성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가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하며 불특정 질의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운용 소프트웨어계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통한 정보통신 사회의 총이로 부다피아가 위상을 더욱 굳게 다져 나가길 기원합니다.

오 상 룡 (하이텔불교동호회 대표사님)

지난해 사찰전자게시판의 개통 이후 꾸준한 기술개발과 투자로 인터넷 부다피아 개통의 쾌거를 이룩한 현대불교 신문사에 먼저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불교계 정보화 현황이 아직은 컴퓨터 통신을 통한 동호회 활동에 머무는 각 중무소에서 간단한 PC조작 정도에 머물러

## 교계 하나로 묶는 정보공동체 초석

있지만 곧 불자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인터넷 ID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 봅니다. 다가올 시대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불교 신문사의 부다피아는 불교의 미래화를 앞당기는 첫 걸음으로 기억될 것이며 불교계에 정보 전산화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 기대됩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 서버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각 단체들과 연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불교계를 하나로 묶는 단일 공동체를 형성할 충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다피아의 건성을 바랍니다.

이 종 복 (나우누리 부처님마을 부사님)

사이버스페이스에 붓다의 광명을 내비친다는 것은 21세기 불국토를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인도에는 힌두교도들의 신문인 힌두타임즈라는 종교신문이 매일같이 발간되고 있고, 또한 인터넷 상으로 그 소식을 전함으로 힌두교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과거와

## 앞선 내용·기술로 불국토 앞당기길

는 또 다른 불국토에 대한 담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현대불교신문이 인터넷 부다피아 서비스를 통해 한국불교의 생명력과 안고있는 고민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은 21세기를 향해가고 있는 불교의 역동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 인터넷 상에는 100여개가

넘는 불교관련 홈페이지가 있고, 각기 소식지를 내고 있지만, 그 내용은 참선 내지는 지역적인 소식에 그치고 있고, 성격이 편중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현대불교신문의 인터넷 서비스는 불교계 최초의 정보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충실한 내용과 기술력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 불교소설의 진수!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도 구도자가 됩니다.

## 대륙의 신라왕자

신용산 장편소설

현대 첨단 과학으로도 해명이 불가능한 기적의 실체인 등신불로 화하여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신라승 김교각 스님의 생애를 그린 책



지장보살 김교각! 임명 후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가?

그는 결코 왕자로서의 자존심과 구법승으로서의 겸허함을 잃지 않았다.

신국판 / 382쪽 / 값 7,000원

## 백운 장편소설 연선도인

① ②

하천한 천민의 모습에서

걸출한 큰스님으로 되기까지의

피나는 구도행각을 그려낸 소설!

신국판 ① ②권 / 각권 500원 / 60권 완결중입니다.

울곡에겐 훌륭한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었듯 서산대사에게는 걸출한 스승 연선도인이 있었다. 우리나라 조계종의 거봉, 6조 부흥당 연선도인!

그로 인해 청허 휴정·부휴 선수의 양대 산맥이 힘차게 뿔어 나가 우리 불교계 전체를 이끄는 햇불이 되었으니...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 5056 팩스 393-9696

우리출판사를 아껴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전하는 최대의 선물!